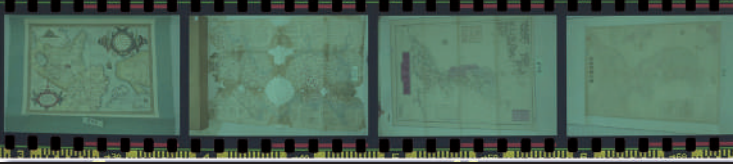


3》'고지도 훼손' 진실은?



6》동연회칙 구체성 부족해



예비 졸업 사정 시행 안내

대상자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 대상자
기간 및 방법 : 예비 졸업 사정 기간 - 2015. 10. 01.(목)~2015. 10. 8.(목)
졸업대상자 확인 기간 - 2015. 10. 05.(월)~2015. 10. 8.(목)
※기타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및 후마니타스 칼리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명에 평화학 박사 수여

우리대학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지난 21일故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 1936~2011) 전 체코 대통령에게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바츨라프 하벨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관련기사 8면>

Newsmaker

교육부 BRIDGE 사업선정
산학협력단장 조민형(생체의공학) 단장



“애써 개발한 기술, 사장되지 않게 실용화에 힘쓰겠다”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이하 BRIDGE) 사업'에 선정됐다. 'BRIDGE'는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의 줄임말로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 대학의 연구성과는 사업의 잠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주변 기술과의 협력 부족, 사업화를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이러한 '데스 벨리 Death Valley*' 현상을 해결하고자 창의적 자산의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BRIDGE 사업 선정, 201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지원

이에 산학협력단 조민형(생체의공학) 단장을 만나 앞으로 자금의 사용과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일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단' 발대식을 열었다. 산학협력단 조 단장은 "우리학교는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이 특허들이 실용화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자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됐다"며 사업 지원 배경을 밝혔다.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단독으로 지원해 선정됐다. 조 단장은 "우리학교에 우수한 교수들이 많고 보유한 특허도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사업선정을 통해 우리학교는 2018년 2월까지 매년 5억씩 총 1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 단장은 "이 같은 지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공모전 지원 자금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자금을 통해,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 단장은 "기술이 실용화 되려면 추가개발이 필요하다"라며 "대학에서는 원리만 보여줄 뿐 추가개발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사장된 기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한 학교 예산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 자금을 통해 학생이나 교수의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술이 상용화 되면 기술 이전율도 증가하고 학교 수익으로도 이어져 학교 재정 기여뿐 아니라 학교의 역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반응이 예상보다 저조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 단장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Death Valley**
기술이전 받은 후, 연구력 및 추가 개발비 부족으로 이전기술의 사장 또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 이기적인 여자?”

서울캠 후마 교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지속...학생들 “집에서 애나 보라”소리 들으러 학교 온것 아냐”

교수의 부적절 발언논란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한 배분이수교과 강의에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파문이 일고 있다.

A교수는 14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지 않고 금테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며, 그 순간부터 그 애들 인생은 망한 거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남성성'이지 여성이 할 일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

해 전해졌다. <관련기사: 서울캠 후마 A교수. 강의 중 부적절 발언 / 대학주보 온라인 참고>

A 교수의 강의를 수강 중인 B학생은 “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학생'이고, 그 꿈을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A 교수는 단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노력과 꿈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일'이라 폄하하고 짓밟았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곳에 입학한 것이지, 꿈을 무시당하고 '너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소리를 듣자고 경희대에 온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역시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C학생은 “첫 수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 수업시간(지난 9월 21일)에도 '외동딸, 외동아들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 계속 문제가 되

는 발언을 했다”면서 “학내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많은데, 해당되는 학생들은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반발심이 들겠는가”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이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우리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 등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배우는 학문이고,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A교수와 전화 인터뷰 후에도 해당 강의 시간에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의 추가 제보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 제보한 B학생은

일주일 후 추가 제보를 통해 “A교수가 강의시간에 '애들이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 못 대들게 만들어야 한다', '(자녀의)기를 꺾는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 '아이는 미리 두들겨 패고, 밟아놔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이런) 교수님이 우리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후마 배분이수교과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가에서 수차례나 벌어져왔던 유사 사례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유사 사례들 모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관련기사 4·5면으로 이어짐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 공동체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③

우기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학의 시민교육은 왜 사회적 주체로서 시민의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동체'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삶의 관계'이며, 사회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생활의 세계'이다.

나와 사회의 관계는 철학자 헤겔의 말마따나 곧 '나인 우리, 우리

인 나'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토대요, 공동체적 삶의 기초다.

그렇기에 나와 사회는 통일적으로 연관·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다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통에 의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로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동물(소통)이고, 또 언어를 매개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동물(공감)이며, 이러한 소통과 정치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공존)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삶의 관계

나 생활의 영역과 연관해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명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일자리),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상대적 단위인 공동체는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생활공간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국제대학 박한규 학장

창의적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 >> 7면



시선

사설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본질을 지향할 것인가

- 지난 18일 전국교수대회를 보며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대학교수 천여 명이 모여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열었다. 우리사회 지성의 첨단이자 학문의 첨병인 교수가 천여 명 단위로 모인 것 자체로도 이미 이례적인 사태지만, 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외쳤다는 것은 상아탑을 둘러싼 작금의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 달 17일에 ‘총장 직선제 무력화’에 항의하며 부산대학교 교내에서 투신한 고고현철 교수를 추도하고 자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모여든 교수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전국의 대학은 1991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국공립대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간선제를 도입한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인선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를 앉히느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결국 ‘교육부의 과도한 대학 운영 개입’이다. 모든 대학은 각 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과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길들이는 사이에, 대학 간의 변별적인 가치와 철학은 점차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교육부가 지정한 각종 지표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아탑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각 대학들이 저마다 지향하는 바를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고 중앙일보 대학평가나 조선일보-QS 대학평가 같은 캠퍼스 외부의 수많은 대학평가가 난립하며 대학에 각종 정량적 지표를 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이 수많은 정책과 지표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는 동안 대학 본연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한국 대학사회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당연히게도, 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이 표방하는 가치와 교육철학을 지닌다. 하지만 대학이 응당 가져야 할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요소가 망실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미래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교육부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대학의 진정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이 지향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부산대의 한 지성은 자신의 목숨 값으로 작금의 세대에 경종을 울렸다. 정부는, 그리고 대학은, 무엇을 더 잃고 나서야 지금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총학, 자치회비 감사

확대 시행 예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 9. 14 ~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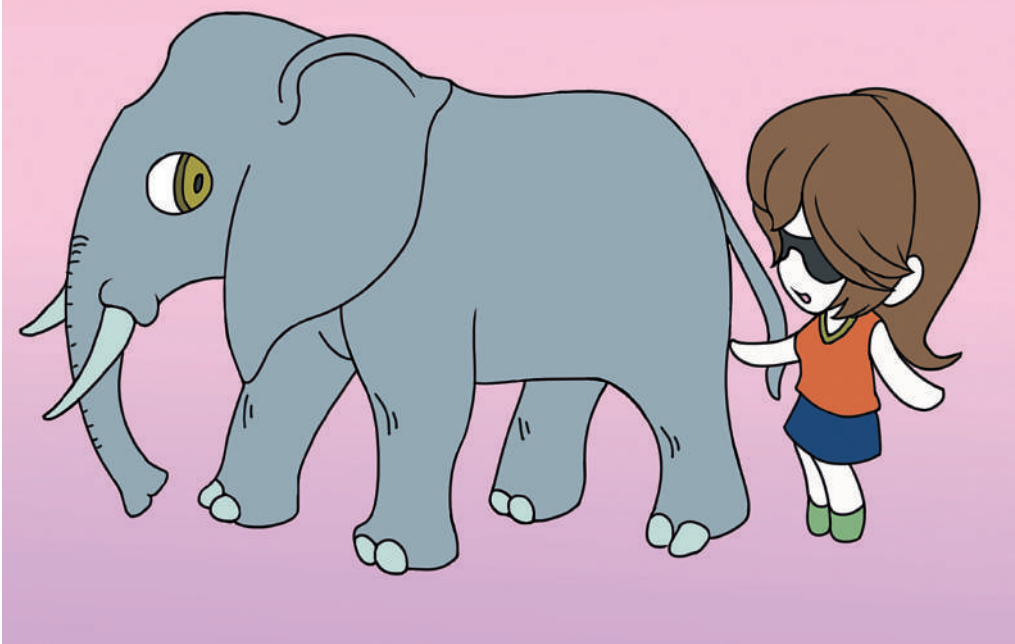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18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전자정보대학에서 경희-삼성 어울림 협약식이 열렸다. (‘경희-삼성 어울림 협약’·산학협력 본적 시동/대학주보 온라인, 2015.9.22) 본 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경희대-삼성전자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협약식에서는 산학협력 공동연구 주제를 담당할 교수와 삼성전자 실무진이 모여 향후 공동 연구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내용은 지난해 논의된 사항인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 DS(Device Solution)부문 임직원의 우리학교 교원 위촉 ▲교내 우수인력 양성 지원 ▲삼성전자 실습기자재·장비 기증 ▲삼성전자 임직원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총여, 생리공결 오남용 8.67% 추경, 진짜?



이주의 주제 - 총여, 생공 오남용 통계 발표

합의를 통한 생공 제도개선에 힘써야

최재원
(정기자)



영국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인용해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을 남겼다. 통계가 잘못 이용됐을 때 발생하는 착시효과나 진실을 호도하는 문제를 잘 꼬집은 어록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총여학생회(총여)의 ‘생리공결제도(생공) 통계’ 논란을 두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총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생공 통계를 청운관 앞에 게시했다. 총여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회장은 “생공의 남용 사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총여가 생공의 ‘당위’를 위해 제시한 통계가 도리어 문제를 키웠다.

우선 조사대상이었던 생공을 1회 이상 신청한 경험에 있는 총 2,975명 중, 1회 이용자 1,714명과 4회 이용한 80명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았다. 단과대학별 이용자 수와 총 신청횟수만 제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축제기간과 샌드위치 휴일 등에 신청한 생리공결제도만 오남용 사례로 집계됐다. 오남용 사례를 모두 포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

리통으로 인해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를 오히려 오남용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총여 금 회장 역시 “안타깝게도 자신의 공간일에 맞춰 연이어 사용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를 모두 집계해 수치로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지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생리라는 사적영역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가 취지나, 노력 등과 관계없이 생공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한계가 분명한 통계를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비판과 여기에서 파생한 생공 자체에 대한 평소의 불만만 쏟아져 나왔다.

지금과 같은 상대결, 혹은 혐오발언 등이 주도하는 생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수다. 올해 초 총여는 여성의 일반적인 생리주기를 고려하여 가령 5월 28일 신청자가 6월 2일에 또 다시 생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기획했던 바 있다. 그러나 생리기간으로 인해 월말과 월초에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총여는 ‘제도개혁’에서, ‘인식개선’으로 활동방향을 틀었다.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인식개혁만으로는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떠나는 우리학교 공동체의 기본적인 특성만 감안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완벽한 제도개혁을 이루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다음 총여가 생공 제도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있는 것도 못 써먹는’
학교가 부끄럽다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지난 18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던 삼성전자와의 산학협력 협약식은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동연구 논의 후 산학협력단 측은 ‘학교 소개’를 시작했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QS대학평가부터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연구진들까지 매년 학교가 자랑하는 ‘주요 항목’들이 소개됐다. 그리고 이어진 뼈아픈 농담은 실로 낮부끄러웠다. “우리학교 공학계열이 좀 안 좋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 때문에 (인식이) 그렇습니다”

위 이야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 문제를 짚은 것이다. 1969년 시작한 우리학교 공학계열은 규모나 연구역량에서 각종 대학평가의 7-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입시수준과 진학을 또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분명 학교가 주장하는 ‘내실과 수준’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대만큼 사회가 우리학교 공학계열을 봐주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 교수의 연구역량, 학교의 시설 인프라, 교육에 관한 비전 등의 구체적 제반조건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사 우리학교가 이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결국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은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대학을 보는 눈인 ‘이미지’는 위 협약식에서 언급됐던 ‘입시생의 시각’을 포함해 기업이 졸업생을 보는 ‘기업의 시각’, ‘학계의 시각’등 다양한 사항들이 종합돼 형성된다. 하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나의 캠퍼스임을 표방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대형 학원가와 입시 포털사이트는 하나의 학교로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몇몇 대학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통용되는 일부 교육기관 배치표에선 여전히 학교가 발표한 최종합격자 성적 자료에 크게 못 미치는 과거의 점수를 표기중이다. 학교 홍보대사 단체 역시 고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제캠퍼스’라는 명칭을 따로 덧붙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가 방관하는 사이 이미지의 ‘민트’들은 기존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결국 향후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미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협약식의 연이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중 응용과학계열과 디자인·공학계열 등 응용학문 위주의 학과가 분포돼있다는 설명이 오가자, 자리에 있던 임원들 중 다수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공학계열인 국제캠퍼스 명칭이 왜 ‘국제’인지, 이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 또한 학교는 찾아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이원화·특성화의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면 향후 발전과는 관계없이 우리학교 공학계열의 ‘이미지’는 그날의 협약식처럼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기획

합의 없는 교수의 ‘일방적 주장’ 학생과의 갈등

교수의 발언 허용 범위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풍경이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여러 차례의 논란이 대학가를 달궜다. 먼저 지난 6월 4일에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교양과목인 ‘과학 철학’ 수업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 임장에서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우리학교 생명과학대학 김세영 교수가 ‘생물2’ 수업에서 이메일을 통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승만의 두 얼굴>과 일본 아사히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슬픈 테러리스트의 진실>을 시청하고 영상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며 역시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연구교수가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남은 것”,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바를 학생들이 받아들일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간에는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되는가?

꼬리무는 교수의 사적 견해 강요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없나

‘합의를 통한 사회 지배’를 일컫는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다.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그는 계급들 간의 관계, 특히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에 발생하는 ‘통제’의 관점에서 이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진부한 인용이지만, ‘두산백과’는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가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X와 Y라는 두 대상을 상징할 때 헤게모니라 X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Y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학교의 수업시간에 대입해보자. ‘입학’과 ‘수강신청’이라는 계약, 동의절차를 통해, 특정한 수업의 수강생들은 ‘교수자’로서의 권리와 주당 세 시간 가량의 수업시간을 ‘경희대학교’에 속한 ‘특정 교수’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일종의 ‘헤게모니’ 역학관계에 놓이게 된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지배계급’의 지위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수자, 즉 교수다. 교수는 평가와 학점을 무기로 학생을 ‘피지배계급’으로 거느린다. 종속집단인 학생이 이러한 구조적 맥락-즉 교수의 가르침에 최대한 따라서 교수로부터 좋은 학점을 얻는다는 ‘강의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수업 시간의 이와 같은 헤게

모니는 성공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을 의미적으로 내포한다. 이는 수업시간의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학생에게 있어 교수는 개념적으로 ‘공경해야 하는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이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아우라를 장착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특정 수업시간에 그 담당교수는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i) 암묵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의 ‘지배자’이자 ii) 학점이라는 수단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평가자’이며 iii)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우월자’가 된다.

학생이 수업 도중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주장, 지시, 요구 등에 직면했을 때 이것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으로 피지배계급의 위치에 놓인 학생은 교수에 대해 사실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중의 제약 속에 묶여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의 헤게모니에서 ‘지배권’을 인정

받는 주체가 관습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교수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교수는 언제나 ‘학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양도한 학생들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오직 정당한 교수법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강의

당혹·혼란 빚게 돼

‘교수의 일방적인 사적 견해 강요’로 올해 대학가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사례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공교과목 시간에 강의계획표와 무관한 내용으로 벌어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벌어진 경우다.

전자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 계획서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특정 수업시간의 역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절차의 전제가 되는 강의계획서다. 수강

서울캠퍼스 2015-2 사회봉사과목 이수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1,2,3” 강좌의 학점이수시 공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 2015-2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03학번(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 이수)
이수구분	자유이수(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학점체계	1학점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간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학점 인정 요소	※봉사 인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외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교내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처(경희봉사단, 입학식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내 캠페인),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글로벌센터 IFCC (한국어도우미)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3.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서류제출기간 2015. 11. 16(월) ~ 2015. 11. 27(금) 오후 5시 30분 마감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한혈증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 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학점 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 예) 하루에 한혈(4시간)과 다른 봉사 7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됨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3.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부터 인정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회만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1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시 복사본을 제출하되 원본대조를 위해 원본을 꼭 지참)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봉사기관별로 개별 발급 x) 9. 사회봉사 제출 서류(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설문지) 양식은 사회봉사 커뮤니티(http://club.khu.ac.kr/khusg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제한 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 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에는 영향없음) 4. 2004학번 ~ 2010학번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할 경우 문화세계지도 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에 문의바랍니다.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hu.ac.kr/khusge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gsc.kh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leehw53@khu.ac.kr(이현호)

지구사회봉사단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공감훈련 집단상담은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 남을 공감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5. 9. 24 ~ 11. 19 (매주 목/ 총 8회) 오후 3시~5시
*중간고사 기간 10/22은 무인입실
장소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오전 9:30~12:00, 오후 1:00~5:00 예만 접수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불러 … 대학, 교강사 관리 체계 재점검 나서야

신청 기간에 학생들이 해당 수업과 교수자에 게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판단근거는 강의계획서에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업 중 강의계획서 상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가치관, 사상 등이 수업 중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강요될 경우,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대해 ‘암묵적 계약의 불이행’에서 오는 당혹감과 혼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언급되는 발언의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헤게모니의 ‘계약, 동의 절차’를 파기하는 행위다.

이제 후자의 경우를 보자. 후자, 즉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교육학적인 문제를 갖는다.

전공교과목이 ‘지적인 교육’이자 ‘교과중심적인 교육’이라면, 교양교과목은 ‘도덕적 교육’이자 ‘인간중심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양교과목에 적확하게 들어맞는 교육철학은 실존주의적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적 교육철학은 도덕적 교육 분야에,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교육방법에 중점을 두는 교육철학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실존철학을 교육학에 전용한 교육학자인 볼노우(Otto Friedrich Bollnow)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역설했다. ‘교육 이전에 참다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육은 교수자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학습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남의 철학자라 불리는 부버(Martin Buber) 역시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고 했다. 그는 저서 『나와 너(Ich und Du)』에서 ‘대화적 관계가 가능할 때 비로소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진 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격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교육은 기능적인 수단 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이 선행되지 않은 채 교수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택광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교수와 학생 간의 합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보다 교육적인 방법론”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선행되지 않고 교육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교수와 학생은 흡스테드가 언급한 ‘권력 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의 문제로 인해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PDI 수치가 클수록 전체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력 관계가 형성돼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교수의 ‘일방적 주장’이 학생과의 합의과정 없이 강요될 경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학생들은 이 경험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게 된다. 이 불쾌감은 헤게모니 역학관계상 확보되어 있는 교수의 ‘지배적 위치’와 맞물려 더 큰 저항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만일 그 ‘일방적 주장’이 현대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전근대적인 발언들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개인적 가치관 일방적인 강요

인격적 만남 포기하는 것

많은 경우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물의를 빚는 사건들은 해당 교수 개인의 결함 혹은 일탈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인식이 아니다.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결국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에 대한 경험으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자면, 한 명의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수강하는 교과목 강의들의 총합이 결국 그 학생에게 미친 경희대학교의 교육철학 그 자체인 셈이다.

한 대학의 교육 수준은 교수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 측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일부 교수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작게는 교강사의 관리에서부터 크게는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 등에 대해 정지(精緻)한 재점검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교강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왔는지는 다소 의문스런 상황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A교수는



한 대학의 교육 수준은 교수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자인 볼노우(Otto Friedrich Bollnow)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역설했다. ‘교육 이전에 참다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육은 교수자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학습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오랜 기간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일 학교 측이 꼼꼼한 교강사 관리와 정교한 커리큘럼 설계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업 중 사적 견해 강요’와 같은 부적절한 일이 생긴다면, 그 때에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적절한 교수의 언행

움부즈팀 통해 시정 요구할 수 있어

다시 그람시로 돌아가보자. 두산백과를 경유할 때,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학의 관점에서 도 헤게모니를 명료하게 정의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새로운 헤게모니는 기존의 부르주아 헤게모니보다 더 거대한 동의 기반을 가질 것이며, 더 많은 집단의 기대와 이해에 부응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헤게모니, 즉 프롤레타리아적 헤게모니는 오직 지배적인 헤게모니와의 대립 관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로 재해석해보면, 헤게모니 관계를 통한 교수자의 ‘정치적 지배’가 교육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월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학생들은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람시의 주장에서, ‘부르주아 헤게모니’는 ‘교수자의 헤게모니’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는 ‘수강생의 헤게모니’로 치환해서 읽으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있다. ‘입학과 수강’이라는 최초의 계약, 동의과정이 제도적 절차를 밟아 이뤄진 ‘학교행정’에 속하는 일 이므로,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교수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수강학생들은 역시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학교행정’에 근거해 조직화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로 이미 ‘움부즈팀’을 두고 있다. 서울캠퍼스 본관 4층 411-2호, 혹은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 대학관 213호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ombuds.khu.ac.kr/>를 통해 교수자로부터 받은 여러 불평·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 보충훈련 안내

- **훈련대상** : 2015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 **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 **일정**

훈 련 명	훈련일자	대상
향방기본 보충훈련	9. 30(수)	2시간 이하 대상자
	10. 2(금)	3시간 ~ 8시간 대상자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 1) 시내버스 : 30번(정광리/취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 3) 개인자동차 : 약도참조

-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다. 전년도 훈련 미이수자, 9월 16일 이후 예비군 전입자는 추후 개별 보충 및 이월훈련 부과

라. 복직(전투복, 전투모, 군화, 군용요대, 바를, 고무장갑)발령자 훈련입소 불가
마.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바.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사.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아. 공결처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10월 5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해당 주어진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1월 1일부터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지역편성,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임
타.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문번호로 반드시 수정
파.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 ☎961-0148~9로 문의



찾아가는 방법

- ◆ 시내버스 이용
 - ◆ 정광리/취경동 : 30번, 천호동 : 23/1-4번, 강변역 : 93번
- ◆ 중앙선 역스/용문동 [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 개인자동차(내비게이션) 이용
 - ◆ 경기도 남양주시 이재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송일아파트 검색
- ◆ 전화번호
 - ◆ 221번호 : 031-595-8337(교원) 연대통화록 또는 3대대통화록
 - ◆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반드시 08시 50분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안내

1.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안내, 연구/업무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예비군전입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내역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스마트 기기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및 IOS(애플)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로 검색해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에서는 종합시간표,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화랑과목담기 등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앱을 설치하면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으로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4.이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은 누구나 khu@khu.ac.kr의 형태로 학교 메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웹메일 서비스(<https://mail.khu.ac.kr/>)를 통해 국 · 는 물론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상용 웹메일 서비스와 같은 방식의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퇴직 후에도 이메일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향인의 일체감 확립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홈페이지 계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사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개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기준은 부서 및 교수·용도의 업무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6.온라인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선스’가 체결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9.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인터넷 증명발급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직이수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증명발급센터(<http://kyunghae.certpia.com/>)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1.캠퍼스 무선랜(Wi-Fi)

교내 전 건물 및 주요 외부 공간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ID/Password로 접속 가능합니다.

12.모바일맞춤 정보서비스(영화 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의 SM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설문조사시스템

행정부서(대원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의 경우, 대량 메일 및 설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출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설문조사를 실

시할 수 있고 체계화된 분석도 가능합니다.

14.소중한견 사 서비스

‘소중한견’ 서비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칭찬/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지원처와 사용자간의 소통공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소중한견 메뉴에서 메뉴에서 메뉴별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15.IT 클렌저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 IT 클렌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Tel.02961-0304,0521 국제캠퍼스 Tel.031201-3171-3)

16.가타

가.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 안내
각종 공지 및 긴급사항 연락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 [교직원은 [My KHU]] -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E-mail/휴대폰 항목에 각각 이메일주소와 휴대문번호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나.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사용 안내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3자리로 되어 있으며, 처음 접속할 때 변경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린 경우 임의의 패스워드로 변경되오니,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가 모두 변경되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IT 클렌저로 연락하 시면 본인 확인 후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드립니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행위자 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khu.ac.kr) 또는 IT 콜센터(서울 02-961-0304,0521, 국제 031-201-3171-3)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지원처

21세기 대학 교육목표, ‘창의’·‘융합’에 방점 타인 배려하고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기본

전문가 칼럼 - 융합교육

박한규
국제대학장



지난 4월 국제캠퍼스 피스홀에서 우리학교 국제학과, 원자력공학과와 학생들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의 핵 주변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과학도와 공학도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에 대해 각자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벌인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그 동안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적었던 사회과학과 공학 전공 학생을 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융합의 교육 현장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핵 주변 문제는 원자력공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적, 사회적, 국제관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공학적 지식, 혹은 사회과학적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

지역·사물 경계 허물어지고
모든 문제는 상호 연결돼

21세기 대학교육의 화두는 ‘융합’(convergence)이다. 융합 학문이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을 연결하는 통섭적인 연구와 교육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세계 모든 지역과 사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고,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제 인태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한 분야의 협소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A man in a blue striped shirt is seen from the back, drawing various business-related charts and diagrams on a whiteboard. The drawings include a bar chart, a line graph, a pie chart, a cloud diagram, and a flowchart. The whiteboard is covered with these hand-drawn illustrations, which represent different aspects of business analysis and strategy.

없는 만큼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는 창의적 융합형 글로벌 인재이다.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적 문제해결능력, 과학적 창조력을 골고루 갖추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재를 말한다. 21세기 사회는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후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적 융합적 인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사(社)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적 디자인에 다양한 ICT 기술들을 결합하는 과학적 창조력을 발휘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하나의 제품은 인간의 삶과 미래 산업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됐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육체제로는 이러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여전히 전공별로 세분화

된 학과 위주로 분절 되어 있고 이론을 암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 교육체계를 가지고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대학 교육체제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체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일방적 강의 위주가 아닌
문제해결형 수업형태 도입되어

세부전공별로 분절된 학과체제에서 유사 전공들을 가능한 한 하나의 단위로 묶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전공 사이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유연한 다전공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경쟁력이 있다고 점쳐지는 분야의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융합형 전공을 만드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문사회와 과학, 인문과 예술, 사회과학과 공학

등 자신들이 원하는 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사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유연한 학사제도는 항상 새롭고 매우 다양한 유형들의 융합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법에서도 강의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수업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나가 실제 문제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는 실무형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려야 하겠다.

창의적 융합형 교육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아직 남았다. 그것은 바로 인성 교육이다. 인간성이 결여된 고도의 기술과 지식만 가진 인간들을 생산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국가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여마당

안종식
기계공학 2010



가슴으로 풀어내야 할 노사갈등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서로 이계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껏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일을 하는 현재에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줄이면 작업의 능률이 증가하고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휴학 중에 아버지가 사장으로 계시는 기계제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예비 노동자, 혹은 미래의 예비 고용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봤다.

회사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회사다.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피고용자 입장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불만과 자식입장에서 들었던 고용주의 불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직원은 고용주의 독단적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통보했고 직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남기를 정했다. 직원들은 과도한 작업량에 반감을 가졌다. 사장이 작업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것 역시 반발을 샀다. 또 직책에 따른 대우가 부족했다. 공장장에게도 다른 직원의 출장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새 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 일반적인 지시와 지적, 불통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언행은 회사를 움직이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불만이었다. 직원들의 고용주를 무시하는 태도와 효율적이지 못한 작업방식은 고용주를 애타게 했다. 직원들은 노동에 대해 불만만 표현할 뿐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다. 불만 사항은 고용주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혹 전달되더라도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곡해되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갔다.

내가 도출해 낸 제일 큰 문제는 태도였다. 고용주는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 피고용자는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해준 것, 잘한 것만 생각하여 불만은 더 커져만 갔다. 고용주는 ‘일이 없을 때도 급여를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용인은 ‘나름대로 일을 제때 끝마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냐’는 입장이었다. 조금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고용인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직원들 또한 자기 일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하면 회사가 더욱 성장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꼈을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은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미래에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 고용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괴테는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쇠사슬’이라고 했다. 노사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친절한 언행은 회사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이러한 삶의 현장과 생활공간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의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모두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공동체적 삶의 현상은 즐거움과 희망을 나누면서도 또 좌초하고 분노하며 환멸을 느끼면서 욕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개인들의 열정에 가득찬 행위들이 있는 삶의 모듬판이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있다. 보통 우리는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말한다. 행복이란 삶은 훌륭한 삶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은 사회적 관계, 즉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행복한 더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개인과 사회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능동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의 합리적인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 평등, 정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명하였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

들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명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물질 풍요와 생활상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반면에 전쟁, 불평등, 경쟁에 의한 승자독식,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생태계 파괴 등이 우리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해관계)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회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월가를 점령하라’, ‘분노하라’ 등 시민의 저항운동이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다. 바로 여기에 대학의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적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학생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Q2. 비밀 보장이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입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진로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진단? 진로 흥미와 자기성향이 맞지 않아 진로선택이 곤란할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진단? 나와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우울,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진단?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볼
진단?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때

Q4.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해주나요?

전화 / 메일 / 방문

<p>서울캠퍼스 02)961-0207 counsel@khu.ac.kr 청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zone, 5.6번강구</p>	<p>국제캠퍼스 031)201-2806 counsel@khu.ac.kr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p>
--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1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34회 세계평화의 날 맞아 ‘평화주간, 명박수여, 좌담회’ 열려

〈명에 박사 학위〉

피스바 페스티벌 2015

김예준 기자 00179jun@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34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세계평화의 날’은 지난 1981년 6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총회에서 당시 의장직을 맡고 있던 우리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UN으로 하여금 세계 평화의 날 및 세계 평화의 해를 제정·공포하도록 제의하자’고 건의한 이후, 1981년 11월 제36차 UN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공식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평화주간’을 선포한 서울캠 후마유정완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테러, 원자력 문제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캠과 국제캠 각각 16, 17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

이번 선포식은 후마가 준비한 세계평화주간 행사 소개와 ‘평화의 풍선 날리기’, ‘선포식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어 이문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평화만이 평화로 갈 수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하며 세계평화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포식은 음악대학원 송덕일·성명은 듀오의 ‘넬라판타지아’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선포식에 참여한 원경준(경영학 2011) 군은 “우리학교에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는 줄 몰랐다”며 “우리가 날렸던 풍선에 담은 기대처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유 학장은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른 지식인으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내년에는 후마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행사를 주관해 더욱 보람찬 행사가 되게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대학에서故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에게 명예 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본 수여식은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다.故 바



지난 16일 세계평화주간 선포식에 참가한 구성원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풍선을 날리고 있다

츨라프 하벨(Va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의 동생인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이반 하벨(Ivan Havel) 교수가 대리로 수여했다.故 바츨라프 하벨(1936~2011)은 ‘프라하의 봄’을 쓴 극작가이자 ‘벤텔 민주혁명’을 주도한 반체제 지식인이다. 우리대학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반정치의 정치’를 실현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 명에 평화학 박사학위 수여

수여식에 앞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상이 상영됐다. 그 외에도 토마쉬 후삭(Tomas Husak) 주한 체코 대사, 체코 카렐대학교 마르틴 부트나(Martin C. Putna)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체코 국립 음악대학과 우리학교 음악대학의 협연으로, 체코의 국민영웅 안토닌 드보르작의 2악장 왈츠가 연주됐다. 뒤이어故 조영식 학원장이 작사하고 박태준 작곡가가 작곡한 〈목련화〉 제창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특별좌담회’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고려대 염재호 총

장, 우리학교 조인원 총장이 패넬로 참여해 약 3시간 동안 ‘대학의 미래, 정치의 미래: 21세기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염재호 총장 “학생 방목하고 있는 지금의 대학은 반성해야 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09.24〉

세계평화의 날 기념특별좌담회 대학의 사회적 책무 토론

토론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현 위치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 패넬은 ‘대학은 사회적 문제에 경고음을 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이 사회적 지식인의 육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염 총장은 “대학은 더이상 사교육을 통해 잘 만들어진 학생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며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방목하는 것은 좋은 대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설립 이념이나 가치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과 가치도 좋지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농구부, ‘2015 대학농구’ 3위

김현국 감독 “플레이오프 준비 매진할 것”

2015 대학농구리그 결과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24일 열린 고려대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다. 우리학교는 점전 끝에 61-67로 패했다.

우리학교는 최종전인 고려대와의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3위가 확정된 상태였다. 고려대 또한 2위인 연세대에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학교와의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고려대는 이날 경기에서 국가대표 차출로 이종현, 문성곤, 강성재 선수가 결장한 채 나머지 멤버들로 경기에 임했다.

대회 내내 괴롭히던 낮은 슈팅 성공률이 결국 최종전인 이날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학교의 3점 슈팅 성공률은 21%로, 총 세 번 성공에 그친 반면, 고려대는 3점슛으로 총 9번 득점에 성공했다. 또 자유투 성공률 또한 50%에 그쳐, 80%를 기록한 고려대에 비해 크게 뒤졌다.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밀린 우리학교는 리바운드에서도 열세를 보이며 승리를 내줬다.

지난 14일 선두를 달리던 고려대가 예상치 못하게 건국대에 패하면서, 우리학교는 남은 일정인 조선대전, 동국대전, 고려대전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었다. 15일에 열린 조선대

〈이번대회 우리학교 경기 결과〉

일시	상대	결과
3월 23일	연세대	71-57 승
3월 31일	성균관대	66-56 승
4월 7일	건국대	79-67 승
4월 13일	상명대	69-58 승
4월 27일	단국대	75-65 승
5월 4일	연세대	66-70 패
5월 13일	상명대	73-58 승
5월 19일	건국대	79-71 승
5월 27일	성균관대	75-56 승
6월 3일	단국대	61-58 승
8월 28일	한양대	65-64 승
9월 1일	중앙대	74-92 패
9월 8일	명지대	70-58 승
9월 15일	조선대	67-61 승
9월 21일	동국대	90-93 패
9월 24일	고려대	61-67 패

와의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승리했지만, 21일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90-93으로 아쉽게 패하며 우승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회의 부진은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긴 전력 손실의 탓으로 보인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커 아쉬움이 크다”며 “다가올 플레이오프 경기를 위해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연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를 3위로 마감한 우리학교는 오는 10월 6일부터 한양대와 중앙대 전의 승자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한 박사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